

“반딧불이 서울광장에 날다”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 28~29일 개최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가 오는 28일과 29일 양일 간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무주반딧불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서울시민들에게 알리며 인지도를 높여 판로확대에 나선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이 주관한다.

28일 오전 10시부터(20:00) 사과, 복숭아, 오미자, 인삼, 청포도, 표고, 양파, 더덕, 벌꿀, 머루, 천마, 옥수수 등 1백여 개 품목(50여 단체 및 업체)의 농·특산물에 대한 전시 및 홍보, 판매, 시식행사가 진행되며 광장 버스킹과 태권도시범(무주태권도시범단)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점심시간(12:00~14:00)과 퇴근 시간(17:00~19:00)에 맞춘 타임 세일과 즉석 착즙(과일) 서비스, SNS 참여 이벤트(참여 시 선물 증정)도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장보기만의 특별한 재미를 선사해 줄 예정이다.

현장 구매고객과 사전 발품한 쿠폰 소지 고객에게는 따뜻한 차 한잔의 여유와 무주에서 재배한 농산물로 만든 건강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카페 무료이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래식 공연과 어우러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가 오는 28일과 29일 양일 간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된다.

진 머루와인시음회도 놓칠 수 없는 체험거리가 될 전망이다.

오후 5시부터는 개회식이 개최될 예정으로 즉석 조리 퍼포먼스 등 스페셜 이벤트가 선보인다. 29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농·특산물 전시, 홍보, 판매, 시식행사를 비롯한 무주카페도 운영된다.

무주군 관계자는 “무풍사과단지 사과나무 체험 행사권, 머루와인, 사과 등 풍성한 경험도 마련되며

현장에서 물품을 구입 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택배신청접수 부스도 운영한다”며 “28일과 29일 엄선한 농·특산물과 최상의 서비스, 그리고 잊지 못할 추억이 기다리고 있는 서울광장으로 꼭 나와 보시라”고 전했다.

한편, 행사장에는 태권도원을 비롯한 반딧불축제 홍보와 사과나무 분양, 귀농·귀촌 상담 부스 등도 마련돼 무주의 이모저모를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가을철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돌입

진안군은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작업에 돌입했다.

군은 추수가 마무리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다음달 14일까지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작업을 실시한다.

먼저 산불 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을 활용해 사전 제거반을 편성하고, 현장에 산불진화차, 진화장비를 투입하여 안전조치 후 산불위험요인 제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 인접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별도의 기간을 정해 공동소각을 진행할 방침이다.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작업은 진안군청 산림과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진안군은 이번 위험요인 사전제거 작업으로 산불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불철 산불조심기간 이전 인화물질을 제거하여 산불발생 위험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위험요인 사전제거 작업을 통해 가을철 산불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들기 지 않음까 걱정하며 태우지 말고 사전제거작업을 신청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군 장수군수, 사업장 현장 점검

장수군 장수군수와 간부공무원은 사업장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군민 불편사항을 수렴·개선하기 위해 이달 10~22일까지 파수거점산지유통센터 등 관내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했다.

23일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주요사업장 방문은 군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파수거점산지유통센터와 2018년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 지렁이 사육장 시범사업 등 총 17개소의 주요 사업장을 방문했다.

장수군 장수군수는 파수거점산지유통센터에 방문해 시설보완의 시운행 시 사업추진의 미비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사업이 완벽시공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선별 및 가공까지 APC에서 처리토록 시품가공공장 설립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렁이 사육장 및 식용곤충 종충 사육 및 공급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장에서는 새로운 축산산업 기반이 구축될 수 있는 방안과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되어 소득 증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장수군 장수군수는 “앞으로 장수군의 주요사업은 현장행정을 중심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며” “이번 방문으로 파악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여 군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행정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멧돼지 포획틀 지원

총 14대 2300만원 사업비 투입

진안군은 23일 농작물 수확기 멧돼지로 인한 피해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유해야생동물 포획틀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이 경작지에 내려와 농작물을 갉아먹고 농경지를 파헤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포획틀 지원은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의 하나로 2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총 14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이며, 읍면별 대상자를 선정해 10월말 공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포획틀이 숲의 무법자 멧돼지 등 포획에 큰 효과가 있을 경우 내년에 확대 설치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획틀 사용 시 안전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국 파워블로거, 진안 팸투어 실시

블로그 및 SNS 콘텐츠 만들어 홍보 예정

진안군은 지난 22일과 23일 전국의 영향력 있는 파워블로거 20여 명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팸투어는 전국 시도에서 활동하는 우수 블로거를 초청해 진안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알리고자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마이산 연인의 길과 은수사, 탐사, 산약초타운, 진안고원치유숲,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등 주요명소를 방문하여 각종 체험과 추억을 쌓으며 취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이 직접 보고 느낀 팸투어 결과물은 블로그 및 SNS 콘텐츠로 만

들어져 홍보될 예정이다.

진안의 관광명소를 둘러본 블로거들은 “진안의 수려한 자연경관에 매료되어 지인들에게 여행을 적극 추천할 생각이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진안의 관광자원과 먹거리를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안계현 관광과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많은 분들에게 진안의 매력이 알려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진안고원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진안의 숨은 매력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사과 향 가득, 사람 향 가득한 무주로”

26일 사과골 무풍면민의 날

무풍면 생활체육공원서 개최

제30회 사과골 무풍면민의 날 행사가 오는 26일 무주군 무풍면 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무풍면 생활체육진흥회(회장 김준식)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주민화합을 도모해 무주반딧불사과를 대표하는 무풍사과의 맛을 알리고 무풍발전을 주도한다는 취지에서 열리는 것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색판뒤집기와 복불복 사과 릴레이 낚기, 윗놀이 등 체육경기와 기념식, 면민노래자랑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을 통해 마련해 사과시사회와 판매를 진행하며 옥수수와 버섯 등 무풍에서 나는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무풍사과단지에서는 사과나무 분양 객들을 대상으로 한 사과따기 체험행사가 함께 진행될 것을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과나무 분양객 이 모 씨는 “해마다 사과나무를 분양받아서 가족들과 같이 가는데 올해는 면민의 날 행사도 구경해볼 생각”이라며 “양 손 가득 사과도 따고 시골인심도 느껴볼 마음에 굉장히 기다려진다”라고 전했다.

무주군 무풍면 배기종 면장은 “반딧불사과의 고장 무풍이 10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한바탕 축제를 마련했다”라며 “빨간 사과 가득한 무풍의 절경 속에서 맛보는 무풍사과의 맛을 놓치지 마시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장수군,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무이자로 최장 6년간 지원

장수군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달 25일부터 신청 접수 받는다.

23일 장수군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은 저소득계층이 영구임대, 30년 임대 등 장기임대주택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최

장 6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수군은 장수북동주공아파트에 신규 입주하거나 기존에 입주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입주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며 입주 계약을 마친 뒤 군에 사업 신청 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이달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장수군청 민원과 주거복지팀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

다. 군 관계자는 “보증금 부족으로 임대주택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홍보 및 추진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